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성적자기주장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강 지 영

2019년 8월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 성적자기주장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김 성 봉

강 지 영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강지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년 6월

<국문초록>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 성적자기주장의 매개효과
강 지 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관계에서 원치 않는 성행동 거부, 성행동 인식, 성욕구 인정·표현을 포함하는 성적자기주장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먼저 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 형식의 예비 조사를 시행하였고, 본조사에서는 대학생 453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결과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변인들의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신뢰도 검증, 타당도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적자기주장에 대해서는 성별과 파트너 기준(실제 파트너, 가상적인 파트너)에 따른 각각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과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성적자기주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성적자기주장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성적자기주장이 낮아지고, 성적자기주장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on과 Kenny(1986)에 의해 제안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3단계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에서 보다 낮게 나타났다. 즉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성적자기주장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성적자기주장의 하위요인인 원치 않는 성행동 거부, 성행동 인식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성적자기주장의 하위요인인 성욕구 인정·표현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적자기주장에 대해 어떤 파트너를 대상으로 설문보고를 하였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설문에서 실제 파트너, 가상의 파트너로 구분하였고, 성별과 파트너 기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성별의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파트너 기준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가상적인 파트너는 남자와 여자 간에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실제 파트너는 남자보다 여자가 성적자기주장이 낮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자기주장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성적자기주장은 낮아지고 이로 인해 데이트폭력 허용도는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성적자기주장의 각 하위요인별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적자기주장과 관련된 내용 중 원치 않는 성행동 거부, 성행동 인식에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하지만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욕구 인정·표현에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성적자기주장은 데이트폭력을 줄일 수 있는 중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해 대학생들을 위한 성적자기주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적자기주장 프로그램은 데이트 관계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포함시킬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성별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트폭력에 예방적 개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트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연애키친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가 성적자기주장을 포함한 의사소통기술과 데이트폭력 관련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 자료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프로그램 등을 통해 성적자기주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초자료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대학내 교양 과목에 데이트 관계, 대인 관계 기술 향상을 위한 과정이 개설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 성역할 고정관념, 데이트폭력 허용도, 성적자기주장

목 차

국문 초록	i
목차	iv
표 목차	vi
그림 목차	vi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9
3. 연구모형	10
4. 용어의 정의	11
II. 이론적 배경	12
1. 성역할 고정관념	12
가. 성역할 고정관념의 개념	12
나.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허용도의 관계	12
2. 데이트폭력허용도	13
가. 데이트폭력의 개념	13
나. 데이트폭력과 폭력허용도	15
3. 성적자기주장	17
가. 성적자기주장의 개념	17
나. 성적자기주장과 데이트폭력허용도	19
4.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데이트폭력허용도, 성적자기주장 간의 관계...	19
III. 연구방법	22
1. 연구대상	22
가. 예비 조사	22

나. 본 조사	23
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3
2. 측정 도구	25
가. 성역할 고정관념 척도	25
나. 데이트폭력 허용도 척도	25
다. 성적자기주장 척도	26
3. 자료처리 및 분석	30
IV. 연구결과 및 해석	31
1.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 평균 및 표준편차	31
2. 성적자기주장의 파트너 기준에 따른 차이	32
3.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35
4. 연구결과	37
V. 논의 및 제언	46
1. 논의	46
2. 제언	48
참고문헌	52
Abstract	59
부록(설문지)	62

표 목 차

표Ⅲ-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4
표Ⅲ-2 성역할 고정관념의 신뢰도 분석	25
표Ⅲ-3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신뢰도 분석	26
표Ⅲ-4 성적자기주장 측정 도구의 요인분석 결과표	27
표Ⅲ-5 성적자기주장의 신뢰도 분석	29
표Ⅳ-1 주요 변인들이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첨도	31
표Ⅳ-2 성별과 기준에 따른 성적자기주장(이원배치 분산분석)	32
표Ⅳ-3 성별에 따른 성적자기주장의 추정 평균 비교	33
표Ⅳ-4 성적자기주장에 대한 파트너 기준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33
표Ⅳ-5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35
표Ⅳ-6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자기주장(전체)의 매개효과	37
표Ⅳ-7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허용도의 관계에서 원치 않는 성행동 거부의 매개효과	39
표Ⅳ-8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허용도의 관계에서 성행동 인식의 매개효과	42
표Ⅳ-9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욕구 인정·표현의 매개효과	44

그림 목 차

그림 I-1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자기주장의 매개모형	9
그림 IV-1	성적자기주장에 대한 파트너 기준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34
그림 IV-2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적자기주장(전체)의 매개효과	39
그림 IV-3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원치 않는 성행동 거부의 매개효과	41
그림 IV-4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행동 인식의 매개효과	43
그림 IV-5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욕구 인정·표현의 매개효과	4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데이트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데이트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일로 인식되었지만, 지금은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대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데이트 상황에서도 성에 대한 개방적인 문화로 인해 다양한 성적 상황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학생들은 데이트 관계에 부정적인 상황이나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기도 한다.

실제 대학생들은 데이트나 연애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와 ‘CJ E&M 리서치 센터’가 2016년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의 20대 대학생 남녀 816명을 대상으로 했던 트렌드리포트인 ‘대한민국 20대 청춘 연애백서’에 따르면 대학생의 51.0%가 현재 연애를 하는 중이라고 응답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솔로를 위한 연애코칭 프로그램을 대학 내 상담센터에서 운영할 정도이니 대학생들의 데이트에 대한 관심과 희망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최근의 미투 운동 확산을 계기로 각 대학이나 인권 단체에서는 데이트폭력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나 강연들을 진행하기도 한다. 프로그램에는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데이트폭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데이트 폭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데이트나 연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행동들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데이트 후에 이별 및 관계 중단에 성공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토론들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사랑과 폭력의 구분을 통해서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데이트폭력에서 대표적인 유형인 통제 폭력을 사랑으로 인식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이다.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데이트폭력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한국여성의전화가 서울 지역의 11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데이트 경험이 있는 370명의 여학생 중 38.1%가 데이트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하예지, 서미경(2014)은 데이트폭력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인 20대~30대 미혼 남녀 858명 중 신체적 피해 경험률은 전체의 49.5%이고, 심리적 피해 경험률은 전체의 30.7%라고 보고하였다. 홍영오, 연성진, 주승희(2015)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전국 19세이상 여성 중 데이트 관계에서 남자 친구로부터 통제경험을 당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76.0%에 달했다. 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률은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19.4%, 심리적·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 35.2%, 성추행 피해 경험 35.5%, 성폭력 피해 경험 20.3%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여성의전화가 2016년 9월 13일부터 9월 21일까지 진행한 ‘2016 데이트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분석에 포함된 성인 여성 1017명 중에서 61.6%가 최근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데이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언어적·정서적·경제적·신체적·성적 폭력이 발생한 비율은 평균 59.9%이고, 특히 성적 폭력은 사귀기 후 3개월 미만에 발생한 비율이 52.1%로 나타났다. 여러 유형의 데이트폭력 중에 성적 폭력은 발생 시기가 빠른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데이트 초기에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데이트폭력에는 통제적 유형의 폭력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게 있다. 위의 실태조사에서 따르면 데이트 관계에서 통제를 경험한 비율은 62.6%로 나타났다. 데이트 상대의 인간 관계나 일상 생활 전반에서 통제를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모든 폭력의 근원인 통제권을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데이트 관계에서 통제는 ‘걱정’이나 ‘관심’, 또는 ‘애정’으로 정당화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실제 실태조사에서 통제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에 “폭력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38.9%), “아무렇지 않았다”(35.8%),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다”(32.1%)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데이트 상대의 통제행동에 대한 반응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47.6%), “상대의 기분에 맞추어 주었다”(42.3%)는 응답이 주요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친밀성으로 인해 통제의 심각성이 등한시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데이트 관계에서 통제

는 간혹 마땅히 따라야 할 행동 규율로 규범화되기도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비난과 처벌이 따르거나 통제를 더 강화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기도 한다.

데이트폭력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68.5%는 6개월 이상 데이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계를 유지한 이유로는 “(폭력의 정도가)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아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해서”, “상대방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주요했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과 폭력 이후에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 등이 관계 중단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적인 행위가 은폐되거나 정당화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데이트폭력 문제는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며, 피해자가 적절한 대응이나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최근의 이런 데이트 폭력을 반영하는 신조어로는 ‘안전이별’이 있다. 안전이별은 물리적·정신적 폭력을 당하지 않고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데이트 관계를 정리하거나 그만두는 경우에 슬픔이나 미련을 떠올리기도 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검색된다고 한다. 다음소프트사가 실시한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안전이별’ 검색 건수가 2015년 8000여 건에서 2016년 1만 5000여건으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2만 4000여건의 검색을 기록했다고 한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서로에게 ‘안전이별을 하셨습니다’를 안부처럼 물어볼 만큼 데이트폭력은 여성에게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면서 “가장 친밀했던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해 본인 뿐 아니라 본인 가족이나 지인에게까지 폭행과 살인을 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안전이별’을 검색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국민일보, 2018. 11. 09)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7년 11월 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 ~ 60세 이하의 데이트 경험이 있는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770명(88.5%)이 데이트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 중 22%는 ‘위협 및 공포심’을 느꼈다고 응답하였고, 24.5%는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했으며, 10.7%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자의 46.4%는 상대방과 결혼했고, 이 중의 17.4%는 ‘데이트폭력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졌다’고 응답했다. 이런 응답을

살펴본다면, 데이트 관계에서 데이트폭력이 빈번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고 데이트 관계에서 고통과 불안을 느끼는 정서 반응도 증가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의 경험이 결혼 이후에도 지속됨으로서 가정 내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해서 개인적 차원과 함께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을 생각하게 된다.

한국 사회의 데이트폭력 현황을 경찰청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데이트폭력이 증가 추세이며, 3년 사이 54.3%가 증가했다고 한다. 2019년 3월 30일 경찰청의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형사입건 현황'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입건 수는 총 3만 9899건이다. 2014년 6675건, 2016년 8367건, 2017년 1만303건으로 증가 추세이다. 2017년에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 사건의 경우 70%정도는 폭행, 상해였고,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추행을 하는 등 성폭력 문제도 250건 넘게 발생하였다고 한다.

또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2016년)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살인 범죄자 중 피해자와의 관계가 '사귀는 중, 애인'인 경우가 11.9%에 달하고, 살인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1명은 애인에게 살해당했다고 보고되었다. 2015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19세 이상 64세 미만의 남성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79.7%가 데이트폭력을 한 번이라도 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결과를 보였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도 데이트폭력과 연관성 있게 발생하고 있다. 이별통보에 따른 보복 뿐만 아니라 데이트 중에서도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의 전화 '2016년 상담통계 분석'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의 78.9%는 전·현 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통계 자료를 통해 데이트폭력 관련 상담이 2배 이상 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하예지(2014)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에 관한 연구에서 성별과 연령을 비교할 때 남성 30대가 데이트폭력의 가해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경찰청의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2016년에는 20대가 2,799명(31.8%), 30대가 2,336명(26.5%), 40대가 1,828명(20.8%) 순이었다. 2017년에는 20대가 3,873명(34.0%), 30대가 2,868명(25.2%), 40대가 2,276명(20.0%) 순이었다. 2018년 1월 ~ 8월 기준으로 20대가 3,125명(34.8%), 30대가 2,407명

(26.8%), 40대가 1,678명(18.7%)의 순이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는 20대가 가장 많고, 데이트폭력 가해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의 가해는 20대~30대에 집중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의 가해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20대 ~ 30대를 대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분명 데이트 관계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유지되기도 하지만 당사자 간에 갈등이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당사자간에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데이트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생활 문화를 들여다보면 데이트폭력이 증가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을 수가 있다. 현재 대학 내 데이트에서는 성 상품화, 이성 중 특히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성차별, 데이트폭력의 문제 등이 만연한 상황이다. 성에 대해 개방적인 방향으로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대학 내 동기나 선후배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트폭력은 개인적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공론화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보다는 개인간의 사적인 문제로 보는 경향이 컸다. 폭력의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는 대학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데이트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학가에서도 성에 대한 개방적인 문화의 확산과 함께 선후배간 혹은 동료간의 데이트폭력이 문제로 떠오르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데이트폭력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면 대학생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을 이루는 것이 어렵게 된다.

데이트 관계에서 상호간 성적 관심이나 성행동 요구 수준이 다를 때 성적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성적 접촉을 원하지 않거나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데이트폭력을 허용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 결과 후회와 실망, 자아 존중감이 저하되고 신체적·정서적인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 서경현(2006)에 따르면 데이트폭력피

해경험은 불안과 우울, 심리적 외상, 만성신체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데이트 관계에서 성적 폭력이 나타나면 분노, 우울, 자전감 저하 등의 심리적 문제 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임신, 인공임신중절 및 성병 감염 등으로 인한 신체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학업과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Luthra & Gidycz, 2006).

박경은, 유영권(2017)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이후에 뒤따르는 부정적인 심각상이 크다고 하였는데, 우울감, 자살시도, 학업성적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대학생과 비교하여 과음이나 흡연 등의 행동 경향성이 높으며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으로서 유사한 폭력의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Smith, White & Holland, 2003).

데이트폭력이 나타나면 아무리 사소한 폭력이라도 그 피해 경험은 대학생에서의 적응력을 떨어뜨리고 대인관계능력에도 영향을 준다. 종종 다른 종류의 심각한 폭력에 이르는 경우도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 시기는 성인기의 초기로서 정체감을 확립하고 부모나 다른 성인으로부터 정서적·경제적으로 독립하며 진로 선택이나 배우자 선택 등의 다양한 과업을 성취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에릭슨의 8단계 심리사회적발달이론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성인 초기는 친밀감 대 고립감의 시기로 사회생활과 결혼생활을 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로 구분된다. 따라서 가족이 아니라 동료나 이성과 친밀감을 쌓기 위해 대학생들은 동성이나 이성 친구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에게 맞는 이성과 교제를 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성과의 만남을 통해 이성에 대한 관심과 가치관을 구체화시키고 타인과 상호관계를 형성하며 인간관계 기술을 발달시키며, 타인에 대한 보살핌과 사랑을 획득하고 이성과의 적응 방법과 이성 간에 기대되는 역할을 학습하게 된다. 이렇게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험과 함께 데이트를 이어가게 된다.

만족스러운 데이트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 생각 등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자기주장이 필요하며, 자기주장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정선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다른 관계보다 더욱 친밀한 관계

일 가능성이 높은 데이트 상황에서는 자기결정권의 확보와 보장이 중요하며, 자유의사에 따른 의사결정과 스스로의 의지와 판단이 실천되어야 만족스러운 데이트를 유지할 수 있다.

데이트폭력이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심리적·감정적 통제와 행동에 대한 통제 등을 일컫는 '통제 폭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통제 폭력은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트폭력이 통제 폭력의 의미임을 알리고 평소에 지각하지 못하는 통제 폭력들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은 성적자기주장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기주장과 다르게 성과 관련된 주장에서는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에 따르면 성적자기주장이란 원치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성행동에 대해 자신의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신의 성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 주장하고 결정하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주장을 뜻한다고 하였다. 성적자기주장은 데이트 관계에서 협상능력을 좌우한다. 일방적인 성적자기주장은 상대방의 성적자기주장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게 되고, 통제 경향을 강화시키며 데이트폭력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안전하고 건강한 데이트를 위해서는 성적자기주장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성적자기주장 수준이 높아진다면 데이트 관계에서 연인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기술로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되고 데이트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낮아질 것이다. 더불어 데이트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폭력을 경험하지 않도록 당사자간 의사소통을 통한 해결 과정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데이트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고찰을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허용도 부분에서 심층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성적자기주장이 데이트폭력 허용도를 낮출 수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은 본격적으로 데이트 관계를 형성해가는 시기이므로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성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생들이 데이트 관계에서 성적인 상황에 대한 주장하거나 거절하기 등이 데이트폭력을 허용한데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사회화 과정 속에서 학습된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 관

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데이트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편으로 성적자기주장의 효과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성적자기주장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한다.

대학생에게 데이트는 아주 중요하고 흥미로운 관심사이긴 하지만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연애나 관계 형성, 소통에 대한 과목은 대학 내 교과 과정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각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중 전인교양으로 공감과 소통, 여성학 등 연애와 관련한 과목이 미비하게 개설된 경우를 보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내 교육 과정에서 데이트폭력을 줄일 수 있는 교양과목으로 구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데이트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연애포럼 프로그램등을 구성해 성적자기주장을 포함한 의사소통기술 함양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학생들의 성 인식과 성적자기주장 능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 간의 관계성을 전달하는 매개변수인 성적자기주장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성적자기주장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데이트폭력 허용도를 낮출 수 있고 궁극적으로 데이트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매개모형 검증을 통해 성적자기주장을 높일 수 있도록 효과적인 상담 개입 방법과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적자기주장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가설 1.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자기주장(전체)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1-1.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자기주장의 하위요인인 원치 않는 성행동 거부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1-2.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자기주장의 하위요인인 성행동 인식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1-3.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자기주장의 하위요인인 성욕구 인정·표현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연구모형

본 연구모형을 통해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적자기주장 전체 및 하위요인(원치 않는 성행동 거부, 성행동 인식, 성욕구 인정·표현)의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자기주장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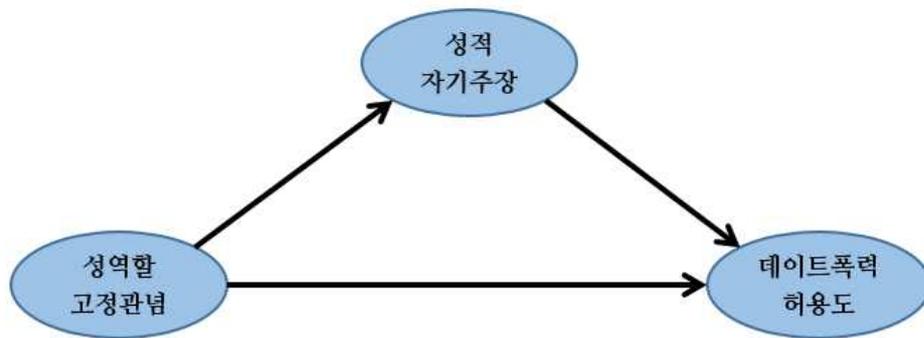


그림 I -1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자기주장의 매개모형

4. 용어의 정의

1)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는 성역할 인식, 성역할 규범, 성역할 개념,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태도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이란 위하여 남현미(2003)의 성역할 태도 척도에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많이 지니고 있는 것이다. 남현미(2003)의 척도는 남성성과 여성성, 성적공격성에 대한 오해, 성차별성, 성의 이중규범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데이트폭력 허용도

유선영(2000)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허용도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에서 폭력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트폭력 행위가 어느 정도 허용되었는가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데이트폭력 허용도는 Foo와 Margolin의 폭력정당화 척도(Justification of Violence scale, 1995)를 장희숙·조현각(2001), 서경현·이영자(2001)의 연구에서 번안해 사용한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의 허용도가 높은 것이며, 허용도가 높다는 것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이 낮고 폭력 사용에 대해 정당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성적자기주장

성적 자기주장이란 자신의 성적인 욕구나 표현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원하지 않는 성적 상황이나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 상황에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고,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른 주장, 결정, 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성적자기주장이란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 측정 가능한 문항으로 개발하고 타당성이 검증된 정진아(2016)의 성적자기주장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원치 않는 성 행동 거부, 성행동 인식, 성욕구 인정·표현과 관련된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자기주장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성역할 고정관념

1) 성역할 고정관념의 개념

성역할이란 한 문화 안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 짓는 특징에 대해 그 문화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합의된 신념 또는 개인이 이해하는 것들의 총체이다(김여운, 2017). 이는 인간이 태어난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환경에 의해 후천적으로 학습하는 사회적인 성(gender)를 의미한다(정영주, 2009; 김여운, 2017)

성역할 고정관념이란 개인적인 속성들을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사회적 범주에 연결시킨 것으로, 남성은 자기주장적이고 지배적이고 경쟁적이며 독립적인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고 여성은 애정적이며 친절하고 협동적인 역할을 하게 기대하는 것을 말한다(Williams & Best, 1990). 데이트 관계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기대를 내면화할 경우에는 성과 관련된 상황에서 거절하거나 자기 주장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Impett & Peplau, 2003).

심정신, 이영숙, 오숙희(2012)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성역할 고정관념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는데,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높다고 하였고, 연령이 높은 집단이 연령이 낮은 집단보다 더 높다고 분석하였다. 김소정(2013)에 따르면 성역할 고정관념은 나이가 어릴수록, 미혼일수록, 여성인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이 있는 여성일수록 유의하게 낮다고 하였고, 가부장적 사고가 강한 전통적인 사회에서도 사회화를 수용한 기성 세대나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기존과 다른 평등한 성역할 태도와 인식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2)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관계

심정신, 이영숙, 오숙희(2012)에 따르면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고 성폭력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대학생일수록 성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을 경험하고도 그 관계를 지속하는 요인에는 폭력에 대한 인식, 정서적 의존 욕구와 함께 대학생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은숙, 강희순(2014)의 ‘대학생의 성역할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 자기주장성, 성폭력 인식도, 성폭력 허용도 및 데이트 성폭력 경험’ 연구에 따르면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다는 것은 데이트 관계에서 자신의 성적 언동이 성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폭력에 대해 인지도가 낮으면 데이트폭력 행동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강차선, 박정환(2016)에 따르면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폭력 피해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성폭력 허용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 중 성역할 고정관념은 데이트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 폭력에 대해 허용적이거나 규율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데이트 관계에서 사소한 폭력이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여러 조건들을 인식의 바탕에 두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있다. 심정신, 이영숙, 오숙희(2012)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을 경험하고 그 관계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폭력에 대한 인식, 정서적 의존 욕구의 수준, 성역할 고정관념이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2. 데이트폭력허용도

1) 데이트폭력의 개념

데이트 관계에서는 갈등 요소를 경험할 수 있는데, 연인 관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구사한다. 하지만 해결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심리적,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아무리 사소한 폭력이라도 데이트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고통 혹은 상해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여러 가지 폭력 유형을 통틀어 데이트폭력이라고 한다.

데이트폭력은 1981년 James M. Makeprace가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 나라에서는 데이트폭력을 가정폭력에 포함된 개념으로 인식하다가 2000년 이후 가정폭력과 별개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Straus(1998)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이란 이성관계를 목적으로 데이트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상대에게 위협적으로 행하는 신체적·심리적·언어적·성적 폭력이라고 하였다. 안귀여루(2002)에 따르면 이성교제 상황에서 각자의 성적 관심이나 성행동 요구수준이 다를 때 성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성적 갈등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나 데이트 성폭력 등과 같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장희숙, 조현각(2001)의 연구에서는 이성교제 폭력 중 성적 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17.7%라고 보고했다.

Riggs와 O'Leary(1989)의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개인적 요인으로는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한 폭력, 폭력을 허용하는 태도, 성격 특성 등이 포함되며 상황적 요인에는 스트레스, 관계 내 갈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장희숙, 조현각(2001)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성별, 범죄 경력, 통제력, 사회적 지지도, 폭력 허용도, 성차별적 태도, 가정폭력 노출 경험, 성격 특성 등이 데이트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이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모든 폭력과, 데이트 관계가 종결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심리적 손상을 뜻한다고 하였고, 실제 연인 간에 상호작용 속에서 어떤 행동이 데이트폭력인지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감각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데이트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행동통제, 성폭력, 정서폭력, 언어폭력 등이 있다. 행동통제는 데이트폭력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대표적인 폭력의 유형이다. 아직까지 행동통제를 폭력으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음을 보여준다. 상대방의 행동을 확인하고 감시하는 등의 행위에는 관리, 감독, 통제의 개념이 들어간다. 데이트 상대방에게 행동통제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된다. 대부분의 데이트폭력은 행동통제에서 시작해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으로 이어지게 된다. Sabina, Straus(2008)에 따르면 데이트 상대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폭력 피해는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아무리 사소한 폭력이라도 데이트폭력에 대한 피해 경험은 대학 생활과 일상 생활에 적응을 어렵게 하며 다른 종류의 폭력이나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Lewin(1985)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은 데이트 상대방의 강압이나 폭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으로부터 심리적인 압력을 이기지 못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고, 비폭력인 강압이 폭력적인 강압보다 발생빈도가 더 높다고 하였다. 서경현(2006)에 따르면 데이트폭력피해경험은 불안과 우울, 심리적 외상, 만성적 신체질환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 하예지(2014)의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의 가해 경험이나 피해 경험이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인식수준이 낮고, 대처방식에서도 적극적 대처의 사용은 낮고 소극적 대처의 사용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것은 데이트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심각한 데이트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데이트폭력과 폭력허용도

데이트 관계에서는 갈등 요소를 경험할 수 있는데, 연인 관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구사한다. 하지만 해결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심리적,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며 이를 데이트폭력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의 정의를 사소한 폭력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고통 혹은 상해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모든 신체적·심리적·언어적 폭력 행동으로 정의하려고 한다.

Riggs와 O'Leary(1989)의 연구에서 데이트 상대방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할지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개인적 변인이라고 보고, 그 하위 변인으로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호전성, 아동기의 부모로부터 학대 경험,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 과거의 폭력 가해 경험, 성격적 요인, 자극에 대한 민감성 등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데이트폭력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는 데이트폭력을 경험하면서 관계를 지속하는 이유와 관련이 있다.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데이트폭력이 발생하고도 관계를 지속하면서 데이트폭력을 허용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장윤경(2002)에 따르면 피해자는 ‘연인과 헤어지게 될까봐’,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까봐’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한 이유에는 실제 경험한 폭력의 강도, 교제의 지속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사자가 교제 관계에서 폭력을 어떤 방식으로 지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였다(Arias & Pape, 1999; Rusbult & Martz, 1995). 데이트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지속하게 한 요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폭력허용도는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의미하는데, 데이트폭력에서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작용한다(장희숙 등, 2001). 신소라(2018)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관련 기관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있으며 스스로 폭력 상황을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사건 발생 후에도 데이트 상대와 헤어지지 않고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데이트폭력이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데이트 관계에서 성폭력의 발생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트 관계에서 특히 성적 폭력이 나타나는 경우는 피해자나 가해자가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데이트 관계에서 성적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박경은, 유영권(2017)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이 대부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같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폭력 사건 이후에 용서를 반복하는 패턴을 가지며, 교제 기간이 길어지고 친밀도가 높아질수록 데이트폭력을 쉽게 허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무감각하게 하거나 데이트폭력 허용도를 높게하는 이유에는 미디어 속의 왜곡된 데이트 모습이 영향을 주기도 한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모습 중 ‘남성적인’ 이미지를 활용하는 경우에 폭력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표현들이 나타나거나, 데이트폭력을 미화시키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접근은 개인적인 차원과 함께 사회 구조적인 차원으로의 분석도 필요하다. 어떤 인식들이 개인에게 데이트폭력으로 인식되고 있는지와 함께

사회의 어떤 문화적 구조들이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주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3. 성적자기주장

1) 성적자기주장의 개념

사람들은 데이트 상황이나 친근감, 친밀함 등의 정서 표현을 위해 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성적 자기주장을 드러나게 된다. 자기주장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 느낌, 감정, 견해 등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이다(Renni & Meggie, 1991). 김영희, 문승태, 강희순(2013)에 따르면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인 한국에서 여성들의 자유롭게 자기표현을 하기가 어렵고 순응을 요구받는 문화 속에서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일상 생활에서 자기주장을 잘 하는 경우에는 성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지금까지 성적자기주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성적자기주장은 원치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성 접촉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여성의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개인의 자기주장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에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간의 성적 경험에 적용되는 기본 권리 중 하나라고 하였다(Patricia, et al., 1997). 특히 인간은 성장과정 중에 성적자기주장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데, 이는 성적인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성적 건강을 돌보는 자율적인 행위이며 원치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성적 접촉 상황에서 자기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성적 의사소통이며, 여대생이 성적인 존재로서 주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적자기주장 능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Vaughn, Rupal & Constance, 2002). 최명현(2005)에 따르면 여대생들에게 이성교제 경험은 결혼과 연관되기 보다는 교제 경험 자체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데이트 상대방과의 성적 접촉에 대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런 결과에 따르면 성적자기주장을 높인다는 의미는

자신이 몸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자신의 성적인 느낌과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말한다.

이지연, 이은설(2006)에 따르면 성적자기주장은 성적자기결정권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 성적인 상황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로서 자신의 감정, 자신감, 사회적 떳떳함 등을 추구하도록 자율성을 행사하는 것이며, 원치않는 성접촉 상황에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데이트 상황에서 나타나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성역할이 성적자기주장을 약화시키고 데이트 상황에서 피해를 유발하게 하는 경로가 유의미하다고 보고하였다.

최명현(2005)에 따르면 성적자기주장이란 원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 상황에 처했을 때 부적절한 성적 접근 신호를 알아차리고 스스로 신체를 보호하며, 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결정하거나 요구, 거절하는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하였다. Patricia, et al.(1997)에 따르면 성적인 상황에서의 의사표현은 크게 2가지 측면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성적인 요구와 욕구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성적인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응하지 않는 것이다(이혜림, 2019, p.7 재인용).

성적자기주장이란 성적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나 생각,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정진아, 2016). 선행연구들에서 밝힌 내용처럼 성적자기주장은 원치않는 성접촉 상황이나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 상황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여성이 원하는 성적 행동을 시도하거나 실행하는 등 성적 목표를 달성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즉, 성적자기주장의 개념은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권리에 기반을 둔다고 볼 수 있다.

조규영, 김윤희(2014)의 연구에서는 성적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경험 유무, 성역할 고정관념, 성 이중기준, 자기주장이 있다고 했는데, 성경험이 없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이 낮을수록 성 이중기준이 낮을수록 자기주장력이 높을수록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성적자기주장은 데이트 중 원치 않는 성행위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정서적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게 하며 자신이 성적 주체임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성적자기주장과 데이트폭력 허용도

성적자기결정권과 의사결정권을 제대로 주장하는 것은 데이트폭력 피해, 원치 않는 성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장순복, 김소야자, 한인영, 박영주, 2001). 손강숙, 정소미(2016)의 연구에서는 성적자기주장과 폭력허용도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최명현(2005)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쉽지 않은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 여성이 성적자기주장력을 가진다는 것은 원치 않는 성접촉 상황에서 그 상황을 피할 수 있고 우발적인 성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지연, 이은설(2006)에 따르면 성적자기주장을 ‘성적자율성이 내재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로 정의하였고 성적자기주장이 높으면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피하고 상황에 따른 분별력과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4. 성역할 고정관념, 데이트폭력허용도, 성적자기주장 간의 관계

대학생 시기는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사회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는 나이이다. 따라서 잘못된 성지식이나 충동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성 행동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정진아, 2016). 따라서 성 행동과 관련된 고정관념이나 통념에서 벗어나야 하며 자유롭게 수용적으로 성을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 성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자유롭게 의사소통 할 수 있다면 높은 성적자기주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적자기주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전통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인식을 내면화한 것인데 이성교제 상황에서 성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전통적인 성역할

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느끼는 결과를 보이게 되는데 이는 곧 전통적인 성에 대한 태도가 수동적인 성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성적자기주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Kiefer & Sanchez, 2007). 특히 여성이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르는 태도는 실제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성적자기주장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와 직접 관련이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폭력에 대한 통념에도 영향을 주는데 박선미와 송원영(2012)에 따르면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김영희, 문승태, 강희순(2013)의 연구에서는 남녀대학생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숙, 강희순(2014)의 연구에서는 여대생들이 여성에게 기대되는 수동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자기보호를 위해서 발휘되는 성적 능동성이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주장하지 않는다면 성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조규영, 김윤희(2014)의 연구에서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나타났다.

이지연, 이은설(2006)의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의 수용이 성적자기주장을 낮게하여 성폭력에 이르게 하는 정적인 간접효과는 유의미하다고 하였다. 특히 여성이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많이 수용할수록 데이트 상황에서 성적자기주장이 낮아지고, 성적자기주장을 못하면 데이트 성폭력 피해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 손강숙, 정소미(2016)에 따르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성적자기주장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데이트폭력 허용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내면화한 여성의 경우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성향이 있고 이는 성적자기주장을 덜 하게 되는 경향성을 형성하며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대학생들의 성 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성적의사소통을 배울 수 있는 기회나 프로그램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정소영, 임채영, 이명신(2016)에 따르면 데이트 관계에서 연인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기술이나 의사 소통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데이트폭력에서 성역

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그리고 성적자기주장이 낮을수록 데이트폭력 허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용할수록 성적자기주장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성적 상황에서 거절을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예비 조사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자기주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제주에 소재한 제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의 다니고 있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터뷰 형식의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기존에 알고 있던 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성별은 남자 3명, 여자 4명이었다. 1학년 3명, 2학년 3명, 3학년 1명이었으며 그 중에 5명은 데이트 경험이 있었다.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관심과 인식 수준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성적자기주장과 관련하여 데이트 관계에서 성적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였고 개인 내적인 요인들과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에 대한 답변들 수집할 수 있었다, 성적자기주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에 대한 질문도 진행하였다. 인터뷰에 소요된 시간은 15분~20분 정도였다. 예비 조사 결과 대학생들은 데이트폭력에 대해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경험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거나 목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편차가 큰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질문에서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영향력이 있다는 답변이 많았으며, 데이트 관계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중 성적 의사소통에 대해 의식하고 있긴 하지만 실천은 어려운 것이라는 견해들을 나타냈다. 예비 조사 결과를 볼 때 전반적으로 연구자의 연구모형이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으며, 대학생들도 데이트 관련된 과목이 개설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데이트 관련된 프로그램이 대학 내에서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

2) 본 조사

본 조사에서는 제주에 소재한 제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의 다니고 있는 남녀 대학생 4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공시 (<http://www.academyinfo.go.kr>) 사이트의 현황으로 볼 때 전체 재학생 수는 제주대학교 10,244명, 제주한라대학교 5,505명, 제주관광대학교 2,242명, 제주국제대학교 1,358명이었다. 해당 대학의 재학생 수 19,349명 중 2%인 387명을 연구 대상으로 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설문은 4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019년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14일간 실시되었으며, 총 491부를 배부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38부를 제외하여 45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91부의 설문 중 143부는 교양수업이나 전공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담당 교수에게 양해를 구하고 연구의 목적, 비밀 보장, 익명성,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한 후 실시하였다. 나머지 348부는 각 학교의 교내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직접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설문을 시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453부는 제주대학교 210부, 제주한라대학교 90부, 제주관광대학교 105부, 제주국제대학교 48부이다.

3)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먼저 연구 대상자인 남녀 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55.2%(250명), 남자는 44.8%(203명)로 나타났다. 연령은 24세 이하가 92.5%(419명)로 대부분 대학생들은 20대 초반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들의 학년은 1학년이 38.6%(175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2학년이 31.1%(141명), 3학년이 19.4%(88명), 4학년이 10.8%(4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이성교제 경험을 살펴보면 아직 한 번도 이성교제를 안 해 봤다는 응답이 23.2%(105명)였고, 가장 많은 응답은 이성교제를 1회 ~ 3회를 경험한 경우로 49.0%(222명)로 나타났다. 현재 이성교제 중이라고 답한 응답은 37.7%(171명)이었고, 현재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2.3%(282명)이었다.

본 연구의 매개변인인 성적자기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파트너는 기준으로 생각

하여 응답했는지 구분하였다. 응답 결과 실제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응답은 42.8%(194명)이었고, 가상의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응답은 57.2%(259명)이었다.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Ⅲ-1과 같이 나타났다.

표 Ⅲ-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53)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203	44.8
	여자	250	55.2
연령	19세 ~ 20세	147	32.5
	21세 ~ 22세	189	41.7
	23세 ~ 24세	83	18.3
	25세 ~ 26세	22	4.9
	27세 ~ 28세	6	1.3
	29세 ~ 30세	2	0.4
	31세 이상	4	0.9
학년	1학년	175	38.6
	2학년	141	31.1
	3학년	88	19.4
	4학년	49	10.8
이성교제 경험	없음	105	23.2
	1회 ~ 3회	222	49.0
	4회 ~ 6회	63	13.9
	7회 이상	63	13.9
현재 이성교제 여부	하지 않음	282	62.3
	교제 중	171	37.7
파트너 기준	실제 파트너	194	42.8
	가상의 파트너	259	57.2

2. 측정 도구

1) 성역할 고정관념 척도

성역할 고정관념 척도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 성적 공격성에 대한 오해, 성차별에 대한 인식, 성에 대한 이중 규범을 측정한 남현미(200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남현미(2003)에 따르면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남성은 주도적이며 여성은 정서적이고 의존적이라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측정하며, 성의 공격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남성은 공격적으로 주도해야 하며 여성은 성적으로 피동적이어야 한다는 오해에 대한 것을 측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차별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안귀여루(2002)의 연구에서 데이트 성폭력에 영향력이 큰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총 15문항으로, 각각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와 ‘매우 그렇다(4)’까지 리커트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많이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현미(2003)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사전조사에서 .79, 본 조사에서 .80이었고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58로 나타났다.

표 III-2 성역할 고정관념의 신뢰도 분석

요인명	문항 구성	문항 수	Cronbach's α
성역할 고정관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	.858

2) 데이트폭력 허용도 척도

대학생의 이성교제에서 데이트폭력 허용도를 측정하기 위해 Foo와 Margolin의 폭력정당화 척도(Justification of Violence scale, 1995)를 장희숙·조현각(2001), 서경현·이영자(2001)의 연구에서 번안해 사용한 것과 비교해서 번역된 의미에 있어 모호한 것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Foo와 Margolin의 폭력정당화 척도는 총 12 문항이었고, 폭력이 일어난 원인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서 폭력 유형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측정하도록 개발되었다. 유선영(2000)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고, 박선미(2011)의 연구에서는 8문항을 수정해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성적자기주장에 관한 연구이므로 일반인 대상의 폭력허용도가 아닌 이성교제에서의 데이트폭력 허용도를 측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척도를 선택하게 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의 허용도가 높은 것이며, 허용도가 높다는 것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이 낮고 폭력 사용에 대해 정당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데이트와 관련된 8가지 상황에서 데이트 상대가 문항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을 때, 남자 친구 혹은 여자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허용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장희숙·조현각(2001)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9였고, 서경현·이영자(2001)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표 III-3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신뢰도 분석

요인명	문항 구성	문항수	Cronbach’s α
데이트폭력 허용도	1, 2, 3, 4, 5, 6, 7, 8	8	.870

3) 성적자기주장 척도

성적자기주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정진아(2016)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학생의 성적자기주장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총 15 문항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자기주장을 측정했던 기존의 척도들과 달리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 측정 가능한 문항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 척도를 사용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영향에서 성적자기주장의 하위요인들이 각각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성적자기주장에 대해 하위 요인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파악하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방법으로는 주축 요인 추출을 실시하였고 베리맥스 회전을 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Ⅲ-4>와 같다.

표 Ⅲ-4 성적자기주장 측정 도구의 요인분석 결과표

item	1	2	3
성적주장3	.746	.231	.199
성적주장5	.743	.248	.095
성적주장6	.724	.123	.143
성적주장4	.704	.209	.119
성적주장1	.680	.276	.257
성적주장8	.645	-.063	-.034
성적주장2	.639	.199	.300
성적주장7	.580	.023	.090
성적주장10	.201	.876	.199
성적주장11	.198	.830	.175
성적주장9	.118	.820	.218
성적주장12	.142	.774	.222
성적주장14	.145	.207	.921
성적주장13	.169	.212	.685
성적주장15	.154	.205	.565
아이겐값	3.940	3.152	2.053
공통분산(%)	26.269	21.011	13.689
누적분산(%)	26.269	47.280	60.969

KMO=.888, Bartlett's $\chi^2=4,206.693(p<.001)$

KMO 측도는 .888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도 유의확률이 .05 미만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누적분산이

60.969%로 나타나, 구성된 3개 요인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 요인에 구성된 항목을 보면, 첫 번째 요인에는 8개 항목이, 두 번째 요인에는 4개 항목이, 세 번째 요인에는 3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요인 적재값은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만족하였다.

구성된 항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정진아(2018)의 연구에서 사용한대로 첫 번째 요인은 원치 않는 성 행동 거부, 두 번째 요인은 성행동 인식, 세 번째 요인은 성욕구 인정·표현으로 명명하였다.

이 척도는 ‘원치 않는 성 행동 거부’ 8개 문항, ‘성행동 인식’ 4개 문항, ‘성욕구 인정·표현’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총 15개 문항의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원치 않는 성 행동 거부’는 성 접촉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고, 원치 않는 성적 요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 행동 인식’은 성적 행동에 대한 인식과 고정관념으로 이루어진 문항이며 역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성 욕구 수용·표현’은 자신의 성적 욕구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며, 성적 욕구를 표현하고 파트너와 공유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은 성 접촉 상황에 대한 거절 및 예방 등의 행동을 중심으로 하위요인을 설정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성적자기주장 척도는 성 접촉 상황에서의 거절과 주장의 의사표현, 성태도와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성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 등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척도와는 맥락을 달리한다(정진아, 2016).

정진아(2016)의 연구에서 척도의 하위요인 및 척도 전체에 대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716 ~ .888 사이로 신뢰도가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성적자기주장에 대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Ⅲ-5와 같이 나타났다.

표 III-5 성적자기주장의 신뢰도 분석

요인명	문항 구성	문항수	Cronbach's α
원치 않는 성 행동 거부	1, 2, 3, 4, 5, 6, 7, 8	8	.890
성행동 인식	9*, 10*, 11*, 12*	4	.628
성욕구 인정·표현	13, 14, 15	3	.670
전체	5	15	.898

* 역채점 문항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을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 도구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하였고,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성적자기주장 변인의 경우 하위 요인별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하위 요인의 문항들이 동일한 구성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기초통계 자료로서 각 변인들의 전체 및 하위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또한 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자기주장 전체 및 하위요인(원치 않는 성 행동 거부, 성행동 인식, 성욕구 인정·표현),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대한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성적자기주장에 대한 성별과 파트너 기준(실제 파트너, 가상적인 파트너) 각각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Two-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성적자기주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에 의해 제안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소벨 테스트(Sobel-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 평균 및 표준편차

본 연구를 위한 기초통계 자료로서 각 변인들의 전체 및 하위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표 IV-1 주요 변인들이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첨도 (N=453)

	최소값	최대값	M	SD	왜도	첨도
성역할 고정관념	1.00	3.27	1.84	0.45	.078	-.523
성적자기주장 전체	1.40	5.00	3.40	0.74	-.473	-.247
성적자기주장_1 (원치 않는 성 행동 거부)	1.00	5.00	3.34	0.84	-.269	-.298
성적자기주장_2 (성행동 인식)	1.00	5.00	3.81	1.09	-.640	-.681
성적자기주장_3 (성욕구 인정·표현)	1.00	5.00	3.02	0.99	.133	-.670
데이트폭력 허용도	1.00	3.63	1.76	0.61	.571	-.372

변인 별 중간 값을 살펴보면 성역할 고정관념 2.5점(4점 척도), 성적자기주장 전체 3점(5점 척도), 데이트폭력 허용도 2.5점(4점 척도)이다.

주요 변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성역할 고정관념의 평균은 1.84(SD=0.45)으로 나타났다. 성적자기주장의 평균은 3.40(SD=0.74)이고 하위 요인별 척도를 살펴보면 원치 않는 성 행동 거부의 평균은 3.34(SD=0.84), 성행동 인식의 평균은

3.81(SD=1.09), 성욕구 인정·표현의 평균은 3.02(SD=0.99)로 분석되었다. 데이트폭력 허용도는 1.76(SD=0.61)으로 집계되었다.

각 변인들의 왜도(-.640~.571)와 첨도(-.681~- .247)의 값이 모두 각각 2와 7을 넘지 않으므로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West, Finch & Curran, 1995).

2. 성적자기주장의 파트너 기준에 따른 차이

본 연구를 시행할 때 매개변인인 성적자기주장에 대한 설문에서는 어떤 파트너를 기준으로 생각하여 응답했는지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 결과 실제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응답은 42.8%(194명)이었고, 가상적인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응답은 57.2%(259명)이었다.

성적자기주장에 대한 성별과 파트너 기준(실제 파트너, 가상적인 파트너)에서 각각의 주효과, 성별과 파트너 기준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Two-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적자기주장에 대해 성별의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8.666$, $p<.01$), 파트너 기준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별과 파트너 기준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지만, 유의수준 10% 기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344$, $p<.01$).

표 IV-2 성별과 기준에 따른 성적자기주장(이원배치 분산분석)

변수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p
성별	4.678	1	4.678	8.666**	.003
파트너 기준	0.001	1	0.001	0.001	.972
성별* 파트너 기준	1.805	1	1.805	3.344	.068
오차	242.364	449	0.540		

** $p < .01$

이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성적자기주장에 대한 성별의 주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페로니의 다중비교(Bonferroni's multiple comparison)를 실시한 결과, 여자($M=3.30$) 대비 남자($M=3.51$)의 성적자기주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성별에 따른 성적자기주장의 추정 평균 비교

종속변수	성별	표본수	평균	표준오차
성적자기주장	남자	203	3.51 ^b	0.05
	여자	250	3.30 ^a	0.05

Bonferroni: $a < b$

한편 상호작용 효과는 파트너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페로니의 다중비교(Bonferroni's multiple comparison)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 파트너의 경우 남자와 여자의 성적자기주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0.022, p < .01$). 가상적인 상대의 경우는 성별에 따라 성적자기주장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4 성적자기주장에 대한 파트너 기준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종속변수	파트너 기준	성별	표본수	평균	표준오차
성적자기주장	실제 파트너	남자	91	3.57 ^b	0.08
		여자	103	3.24 ^a	0.07
	가상적인 파트너	남자	112	3.45 ^a	0.07
		여자	147	3.37 ^a	0.06

Bonferroni: a < b

최종적으로 도출된 <그림 IV-1>의 그래프를 보면 상호작용 효과를 잘 파악할 수 있다. 가로축은 성별, 선이 구분된 선은 실제 파트너와 가상적인 파트너, 세로 축은 성적자기주장이다. 가상적인 파트너는 남자와 여자 간에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실제 파트너는 남자보다 여자가 성적자기주장이 낮게 나타났다. 그래프의 기울기 차이가 크면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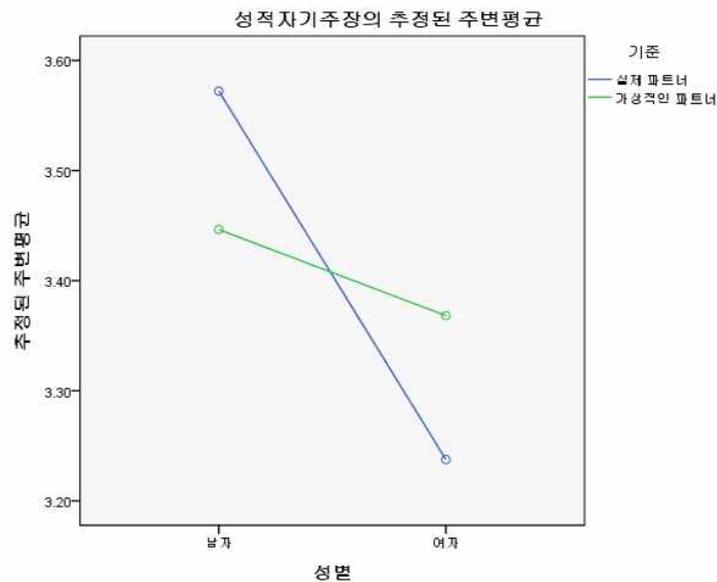


그림 IV-1 성적자기주장에 대한 파트너 기준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3.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자기주장 전체 및 하위 요인(원치 않는 성 행동 거부, 성행동 인식, 성욕구 인정·표현),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IV-5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	1	2	2-1	2-2	2-3	3
1. 성역할 고정관념	1					
2. 성적자기주장	-.260***	1				
2-1 원치 않는 성 행동 거부	-.299***	.863***	1			
2-2 성행동 인식	-.220***	.753***	.394***	1		
2-3 성욕구 인정·표현	.032	.674***	.378***	.452***	1	
3. 데이트폭력 허용도	.271***	-.452***	-.336***	-.410***	-.326***	1

* $p < .05$, ** $p < .01$, *** $p < .001$

그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관계($r = .271$, $p < .001$)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적자기주장 전체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 = -.260$, $p < .001$)를 보였고, 성적자기주장의 하위 요인인 원치 않는 성 행동 거부($r = -.299$,

$p<.001$)와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성행동 인식($r=-.220, p<.001$)과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성적자기주장 전체는 낮고, 성적자기주장의 하위 요인 중 원치 않는 성 행동 거부와 성 행동 인식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자기주장 전체는 성적자기주장의 하위 요인인 원치 않는 성 행동 거부($r=.863, p<.001$), 성행동 인식($r=.753, p<.001$), 성욕구 인정·표현($r=.674,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데이트폭력 허용도($r=-.452, p<.001$)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요인은 성적자기주장 전체($r=-.452, p<.001$)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적자기주장의 하위 요인 중에는 성행동 인식($r=-.410, p<.001$), 원치 않는 성 행동 거부($r=-.336, p<.001$), 성욕구 인정·표현($r=-.326, p<.001$)의 순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성적자기주장이 높으면 데이트폭력 허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적자기주장이 높은 대학생은 데이트 상황에서도 폭력을 정당하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상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적자기주장의 하위 요인인 성욕구 인정·표현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4. 연구결과

1)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자기주장(전체)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성적자기주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96)에 의해 제안된 위계적 회귀분석(Baron and Kenny'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IV-6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자기주장(전체)의 매개효과

종속 변수	독립 변수	<i>B</i>	<i>S.E.</i>	β	<i>t</i>	<i>p</i>	<i>F</i>	R^2 ($adjR^2$)
성적 자기 주장	(상수)	4.186	0.142		29.505***	<.001	32.591***	.067 (.065)
	성역할 고정관념	-.426	.075	-.260	-5.709***	<.001		
데이트 폭력 허용도	(상수)	1.077	.117		9.224***	<.001	35.847***	.074 (.072)
	성역할 고정관념	.368	.062	.271	5.987***	<.001		
데이트 폭력 허용도	(상수)	2.494	.182		13.667***	<.001	67.258***	.230 (.227)
	성역할 고정관념	.224	.058	.165	3.852***	<.001		
	성적자기 주장	-.338	.035	-.410	-9.564***	<.001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 계수 Ba = -.426		표준오차 SEa=.075				
Z = 4.89593528***		비표준화 계수 Bb = -.338		표준오차 SEb=.035				

*p<.05, **p<.01,***p<.001

그 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32.591$, $p<.001$), 2단계($F=35.847$, $p<.001$), 3단계($F=67.258$,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6.7%(수정된 R^2 은 6.5%), 2단계에서 7.4%(수정된 R^2 은 7.2%), 3단계에서 23.0%(수정된 R^2 은 22.7%)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859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72로 나타났는데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1단계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beta=-.260$, $p<.001$)이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성적자기주장이 낮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2단계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beta=.271$, $p<.001$)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성적자기주장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410$, $p<.001$), 성역할 고정관념($\beta=.271 \rightarrow .165$)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에서 보다 낮게 나타났다. 즉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성적자기주장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추가적으로 성적자기주장의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소벨 테스트(Sobel-test)를 실시하였다. Z 값이 ± 1.96 보다 크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사이에서 성적자기주장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Z=4.896$, $p<.001$).

도식화하여 제시한 결과는 그림 IV-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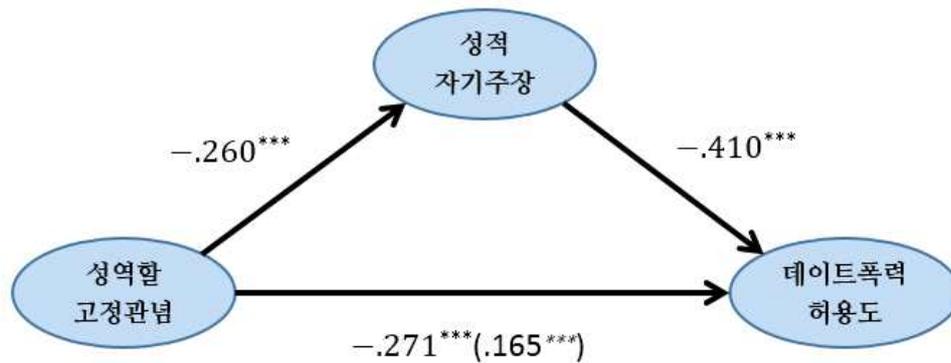


그림 IV-2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적자기주장(전체)의 매개효과

2)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자기주장의 원치 않는 성행동 거부의 매개효과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성적 자기주장의 하위 요인인 원치 않는 성행동 거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89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7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허용도의 관계에서 원치 않는 성행동 거부의 매개효과

종속 변수	독립 변수	<i>B</i>	<i>S.E.</i>	β	<i>t</i>	<i>p</i>	<i>F</i>	R^2 ($adjR^2$)
원치 않는 성행동 거부	(상수)	4.369	.160		27.361***	<.001	44.335***	.090 (.087)
	성역할 고정관념	-.560	.084	-.299	-6.658***	<.001		
데이트 폭력 허용도	(상수)	1.077	.117		9.224***	<.001	35.847***	.074 (.072)
	성역할 고정관념	.368	.062	.271	5.987***	<.001		
데이트 폭력 허용도	(상수)	1.965	.183		10.725***	<.001	38.184***	.145 (.141)
	성역할 고정관념	.254	.062	.188	4.106***	<.001		
	원치 않는 성행동 거부	-.203	.033	-.280	-6.133***	<.001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 계수 Ba = -.560		표준오차 SEa=.084				
Z = 4.52094229***		비표준화 계수 Bb = -.203		표준오차 SEb=.033				

*p<.05, **p<.01,***p<.001

그 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44.335$, $p<.001$), 2단계($F=35.847$, $p<.001$), 3단계($F=38.184$,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9.0%(수정된 R^2 은 8.7%), 2단계에서 7.4%(수정된 R^2 은 7.2%), 3단계에서 14.5%((수정된 R^2 은 14.1%)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885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산팽창지수(VIF)는 1.098로 나타났으므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1단계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beta=-.299$, $p<.001$)이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성적자기주장의 하위요인인 원치 않는 성행동 거부는 낮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2단계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beta=.271$, $p<.001$)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 3단계에서는 성적자기주장의 하위요인인 원치 않는 성행동 거부가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280, p<.001$), 성역할 고정관념($\beta=.271 \rightarrow .188$)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에서 보다 낮게 나타났다. 즉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성적자기주장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추가적으로 성적자기주장의 하위 요인인 원치 않는 성행동 거부의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소벨 테스트(Sobel-test)를 실시하였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사이에서 원치 않는 성행동 거부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Z=4.521, p<.001$).

도식화하여 제시한 결과는 그림 IV-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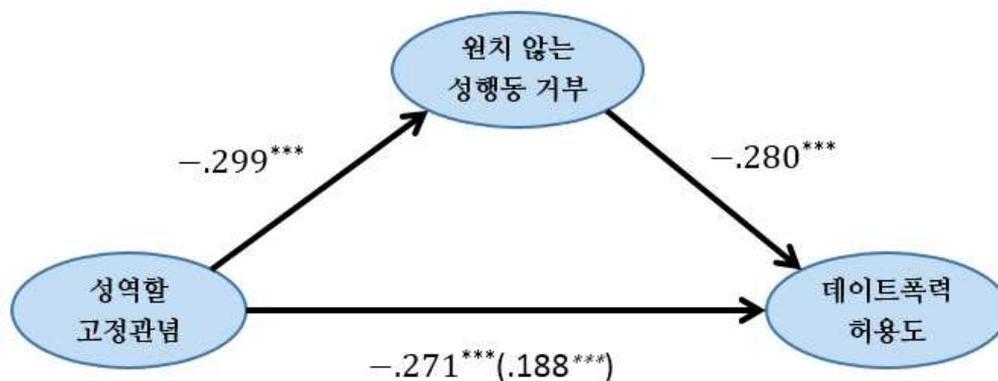


그림 IV-3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원치 않는 성행동 거부의 매개효과

3)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자기주장의 성행동 인식의 매개효과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성적자기주장의 하위 요인인 성행동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9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8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허용도의 관계에서 성행동 인식의 매개효과

종속 변수	독립 변수	<i>B</i>	<i>S.E.</i>	β	<i>t</i>	<i>p</i>	<i>F</i>	R^2 (<i>adjR^2</i>)
성행동 인식	(상수)	4.788	.211		22.669 ***	<.001	22.848***	.048 (.046)
	성역할 고정관념	-.532	.111	-.220	-4.780***	<.001		
데이트 폭력 허용도	(상수)	1.077	.117		9.224***	<.001	35.847***	.074 (.072)
	성역할 고정관념	.368	.062	.271	5.987***	<.001		
데이트 폭력 허용도	(상수)	2.066	.159		13.026***	<.001	57.279***	.203 (.199)
	성역할 고정관념	.258	.059	.190	4.414***	<.001		
	성행동 인식	-.207	.024	-.369	-8.543***	<.001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 계수 Ba = -.532		표준오차 SEa=.111				
Z = 4.18942246***		비표준화 계수 Bb = -.207		표준오차 SEb=.024				

*p<.05, **p<.01,***p<.001

그 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22.848$, $p<.001$), 2단계($F=35.847$, $p<.001$), 3단계($F=57.279$,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

력은 1단계에서 4.8%(수정된 R²은 4.6%), 2단계에서 7.4%(수정된 R²은 7.2%), 3단계에서 20.3%((수정된 R²은 19.9%))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886으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산팽창지수(VIF)는 1.051로 나타났으므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1단계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beta = -.220, p < .001$)이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성적자기주장의 하위요인인 성행동 인식은 낮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2단계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beta = .271, p < .001$)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성적자기주장의 하위요인인 성행동 인식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369, p < .001$), 성역할 고정관념($\beta = .271 \rightarrow .190$)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에서 보다 낮게 나타났다. 즉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성행동 인식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추가적으로 성적자기주장의 하위 요인인 성행동 인식의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소벨 테스트(Sobel-test)를 실시하였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사이에서 성행동 인식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Z = 4.189, p < .001$).

도식화하여 제시한 결과는 그림 IV-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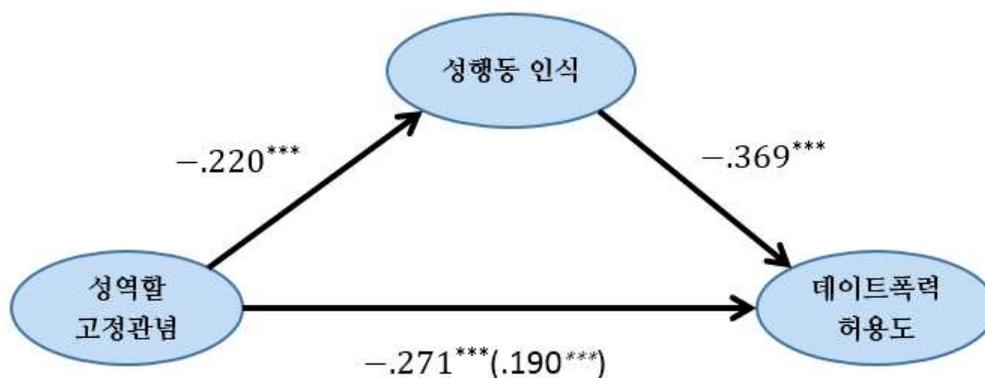


그림 IV-4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행동 인식의 매개효과

4)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자기주장의 성욕구 인정·표현의 매개효과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성적자기주장의 하위 요인인 성욕구 인정·표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9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9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욕구 인정·표현의 매개효과

종속 변수	독립 변수	<i>B</i>	<i>S.E.</i>	β	<i>t</i>	<i>p</i>	<i>F</i>	R^2 ($adjR^2$)
성욕구 인정·표현	(상수)	2.895	0.196		14.791***	<.001	.453	.001
	성역할 고정관념	0.069	0.103	.032	0.673	.501		(-.001)
데이트 폭력 허용도	(상수)	1.077	.117		9.224***	<.001	35.847***	.074
	성역할 고정관념	.368	.062	.271	5.987***	<.001		(.072)
데이트 폭력 허용도	(상수)	1.678	.134		12.563***	<.001	51.327***	.186 (.182)
	성역할 고정관념	.383	.058	.282	6.625***	<.001		
	성욕구 인정·표현	-.208	.026	-.335	-7.872***	<.001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 계수 Ba = .069				표준오차 SEa=.103		
Z = -0.66756650		비표준화 계수 Bb = -.208				표준오차 SEb=.026		

*p<.05, **p<.01,***p<.001

그 결과 1단계 검증에서 *F*값이 .453로 독립변인인 성역할 고정관념은 매개변인 성적자기주장의 세 번째 하위요인인 성욕구 인정·표현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는 설명력을 갖지 않았다. 2 단계($F=35.847$, $p<.001$), 3단계($F=51.327$,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설명력도 2단계에서 7.4%(수정된 R^2 은 7.2%), 3단계에서 20.3%((수정된 R^2 은 19.9%)로 나타났더라도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매개효과 분석이 성립되지 않는다. 즉,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자기주장의 하위요인인 성욕구 인정·표현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소벨 테스트(Sobel-test)를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인 유의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사이에서 성욕구 인정·표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Z=-0.668$, $p>.504$). 이에 따라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자기주장의 하위요인인 성욕구 인정·표현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성욕구 인정·표현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관계에서 매개한다고 할 수 없다.

도식화하여 제시한 결과는 그림 IV-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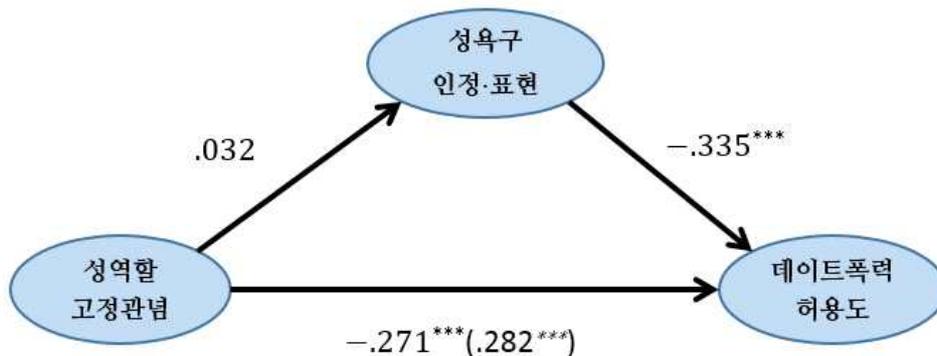


그림 IV-5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욕구 인정·표현의 매개효과

V.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자기주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를 위해 제주도내 대학생 45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 장의 조사연구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적자기주장 전체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성적자기주장의 하위 요인인 원치 않는 성 행동 거부와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성행동 인식과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적자기주장은 데이트폭력 허용도와 유의한 부적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성적자기주장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데이트폭력 허용도는 성적자기주장 전체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성적자기주장의 하위 요인 중에는 성행동 인식, 원치 않는 성 행동 거부, 성욕구 인정·표현의 순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구의 결과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자기주장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성적자기주장은 낮아지고 이로 인해 데이트폭력 허용도는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성적자기주장의 하위요인인 원치 않는 성행동 거부, 성행동 인식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성적자기주장의 하위요인인 성욕구 인정·표현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적자기주장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는데, 김영희, 문승태, 강희순(2013)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전통적 성태도와 성적자기주장 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성적자기주장과 데이트폭력 허용도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는데, 이는 이은숙, 강희순(2014)의 연구에서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과 데이트 성폭력 경험 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손강숙, 정소미(2016)의 연구에서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 성적자기주장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인식·태도에 대한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강차선, 박정환(2016)의 연구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폭력 피해경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성역할 고정관념을 올바르게 인식한다면 성폭력 허용도는 낮아지고 성폭력 피해는 감소된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오숙희, 강희순, 김윤희(2010)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간통념 수용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김은경 등(2010)의 연구에서는 성차별적 인식과 태도가 데이트 성폭력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자기주장은 데이트폭력을 줄일 수 있는 중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성적자기주장성이 중요함이 증명되었다.

본 연구에서 성적자기주장에 대한 성별과 실제 파트너인지 가상 파트너인지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했다. 분석 결과 가상의 파트너는 남자와 여자 간에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실제 파트너는 남자보다 여자가 성적자기주장이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영희 등(201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성적자기주장이 높다는 결과와 반대된다. 성별 차이에 있어서 여학생이 성적 자기주장이 높은 이유를 비교한 연구를 찾아보면, 여학생의 경우 성적 행동의 결과가 임신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제 파트너에서 여자 대학생의 성적자기주장이 더 낮다고 나타남으로서 기존의 연구들과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른 결과가 도출된 원인은 본 연구가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에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폭력과 관련된 인식이나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변화가 한국 사회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해체하기 위한 인식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이나 대도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빠르게 반영되거나 확산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실제 토론회나 집회, 여러 행사 등을 통해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이 일부 대도시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주지역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는 사회 변화의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적 파급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학 내에서 학생들이 성적자기주장을 높이고 더불어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키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결과로 데이트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학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제언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허용도를 낮추기 위해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적자기주장에 대해 연구하였고, 매개변인인 성적자기주장은 데이트폭력에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학에 재학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성을 포함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셋째, 예비 조사에서 개별 인터뷰를 통해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인터뷰에서 성적자기주장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어떤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집할 수 있었다. 대학생들은 어떤 행동들이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데이트폭력을 경험할 때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과 동시에 데이

트폭력 피해를 위한 치유 상담이 개설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넷째, 만족스러운 데이트를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위해 직접 설문지를 시행하며 대학생들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데이트 관계에서 실제로 성적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적의사소통이 차단되고 성적자기주장이 실천되지 않으면 데이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 내에서는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예방하기 위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성적자기주장을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된 데이트 상황의 갈등에 노출을 시킴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하여 실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대학 내 데이트폭력을 줄일 수 있는 교양교육과정으로 교과 커리큘럼에 구성하거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각한다.

다섯째,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해 대학생들을 위한 성적자기주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적자기주장 프로그램은 데이트 관계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포함하여 적절하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기술 습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자기주장 능력이 성적인 상황에서 성적자기주장으로 표현되는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성별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데이트 관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결혼 후 가정생활에서도 큰 도움일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적자기주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하여 실제 적용을 한 후, 성적자기주장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담을 통한 데이트폭력에 예방적 개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데이트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연애클리닉프로그램 등을 구성해 성적자기주장을 포함한 의사소통기술 함양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본 연구 자료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프로그램 등을 통해 성적자기주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초자료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대학에서 데이트 관계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훈련이나 성적자기주장 훈련 프

로그램 등을 기획함으로써 일률적인 교육이 아니라 연령과 맥락에 맞게 질적으로 향상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과제

첫째, 본 연구는 제주 지역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데이트폭력 허용도를 낮추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접근을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성적자기주장을 높일 수 있는 상담 메뉴얼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20대 이후에 데이트폭력이 급증하고 있다면, 그 이전 시기인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허용도를 낮출 수 있는 연구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데이트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개입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성적자기주장에 대한 실제 파트너와 가상의 파트너로 구분하여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성별의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상의 파트너는 남자와 여자 간에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실제 파트너는 남자보다 여자가 성적자기주장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데이트를 경험하지 않았을 때 여성의 성적자기주장은 높지만 데이트를 경험한 후에는 성적자기주장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데이트 이후 성적자기주장에 변화를 주는 요인들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여성의 성적자기주장이 낮아지는 현상을 문화적·사회적·지역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실시 결과 모든 변인에서 성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개인 내적인 차원의 성별 고정관념과 성적자기주장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예상된다. 후속 연구에서 여성과 남성을 모두 대상으로 하며, 개인 내적인 변인 뿐만 외적인 변인들을 포함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폭력허용도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본 연구는 제주도내 대학생 4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년별로 빈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학년별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 수를 더욱 확대하고 학년별로 동일 비율을 대상을 선정하여, 학년별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데이트폭력에 대한 양적 연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데이트폭력 피해 상황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예방적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양한 피해 사례에 대해 질적 연구를 통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피해자들이 가지는 심리적 특징과 피해 경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이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데이트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차선, 박정환(2016).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피해경험과의 관계에서 성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 : 제주지역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8), 273-279.
- 국민일보(2018). “이별, 목숨 걸어야 할 수 있나요”.
http://www.kukminusa.com/news/view.php?gisa_id=0924030056. (2019. 3. 29.).
- 김보경, 김혜경, 이아영, 김태우, 박재희, 김동욱(2018). 대학생의 양성평등 의식, 자아존중감이 데이트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Oil & Applied Science*, 35(3), 768-777.
- 김보미(2017). 남자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6), 525-533.
- 김소정(2013).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성인기 인구 집단을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4(1), 89-111.
- 김수연, 김민지(2018). 동성관계에서의 데이트폭력 피해경험과 성적자기주장, 폭력허용도와의 관계. *인문사회과학연구*, 19(4), 489-523.
- 김영희, 문승태, 강희순(2013).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3), 166-175.
- 김은하(2018).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 개발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24(4), 593-614.
- 김정내(2018). **대학생의 데이트폭력과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분석**.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김효정(2018). 미혼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 영향요인.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0), 467-474.
- 남현미(2003). **대학생의 데이트성폭력 실태와 가해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대학내일20대연구소, CJ E&M 리서치센터(2016). 대한민국 20대 청춘 연애펙서,
<https://www.20slab.org>

- 머니투데이(2019), “잇따르는 데이트폭력·연인간 몰카… ”누굴 믿고 사귀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2514340833538> (2019. 3. 31.)
- 박경은, 유영권(2017).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심리내면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9(3), 711-742.
- 박선미, 송원영(2012).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성관련 경험이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7(2), 265-280.
- 박영주(2018). 대구지역 데이트폭력의 실태 및 요인 분석. **치안정책연구**, 32(3), 103-139.
- 서경현(2006). 친밀한 관계에서의 갈등과 건강 ; 데이트폭력의 심각성과 심리적 개입.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단일호), 48-49.
- 서경현(2009). 이성관계에서 행해지는 데이트폭력에 관한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4(4), 699-727.
- 서백임(2016). 대학생 남녀의 성인애착, 심리적 통제성, 성역할 태도가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의국어대학교.
-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7). 서울시 여성의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 선미경, 이도균, 조경덕(2019). 성적의사결정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2), 331-339.
- 손강숙, 정소미(2016).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21(3), 441-457.
- 송영주, 장현아(2017). 애착 외상과 데이트폭력 피해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범죄심리연구**, 13(1), 111-140.
- 신소라(2018). 데이트폭력 피해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사례분석. **한국범죄심리연구**, 14(2), 47-62.
- 신원우(2017). 성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의 차이에 관한 연구.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5), 767-775.
- 심정신, 이영숙, 오숙희(2012).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인지도 및 성폭력 허용도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8(2), 117-125.

- 배수희, 손승영(2016).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과 인식의 여성주의적 분석. **여성학연구**, 26(1), 93-124.
- 송민혁(2018). **데이트폭력 피해경험이 피해자의 결별의도에 미치는 영향 : 데이트폭력 편견과 폭력허용도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 안귀여루(2002). 이성교제 폭력행동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9, 55-75.
- 오윤희, 임성문(2018). 대학생이 지각한 가해동기와 데이트폭력의 관계 :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23(2), 223-245.
- 오주령, 박지선(2019).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데이트폭력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법**, 10(1), 47-65.
- 유미영(2019). **여대생의 거절민감성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의 매개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유미영, 하정희(2019). 여대생의 거절민감성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24(1), 47-66.
- 유선영(2000). **여대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데이트폭력 피해간의 매개요인에 관한 연구 : 데이트폭력 허용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유영권, 박경은(2018).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상담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30(4), 955-983.
- 윤진, 양승연, 박병금(2012). 가정폭력경험,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 열등감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6), 79-107.
- 이규미(1996). 여성상담의 특징과 여성상담자의 전문적 자질. **한국여성심리학회지 : 창간호**, 1, 128-138.
- 이난희, 정준식, 송혜숙(2016). 여대생의 성경험과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3), 414-422.
- 이경인, 허난설, 최수미(2017).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남녀대학생의 성적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 성인애착과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22(4), 551-567.
- 이선경, 허용희, 박선웅(2015). 성별과 나이에 따른 성폭력 인식의 차이. **한국심**

- 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9(1), 65-81.
- 이성희, 강혜인, 김연수, 박수현, 박시윤, 박지영, 박지예, 육지영(2016). 대학생의 아동기 학대경험, 성인애착, 관계통제와 데이트폭력.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1), 165-178.
- 이은숙, 강희순 (2014).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 자기주장성, 성폭력 인식도, 성폭력 허용도 및 데이트 성폭력 경험. *동서간호학연구지*, 20(1), 48-56.
- 이은진(2015).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심리학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20(3), 427-441.
- 이지연, 이은설(2005).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와 가해에 대한 설명모형.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7(2), 419-436.
- 이지연, 이은설(2006). 여성용 성적 자기주장성 척도의 개발 및 구인 타당도 검증. *상담학연구*, 7(1), 47-62.
- 이현정(2018). 데이트폭력에 관한 최근 국내 연구 동향 분석.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4), 153-161.
- 이현정, 윤미선, 김영은, 이수영(2018).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허용도 및 폭력 인식 관련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3), 115-125.
- 이혜림(2019). 여대생의 성역할고정관념이 성적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장순복, 김소야자, 한인영, 박영주, 강현철, 이선경(2001). 십대 여학생의 성행태와 성경험 관련요인. *한국간호과학회*, 31(5), 921-931.
- 장윤경(2002).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장희숙, 조현각(2001). 대학생 이성교제폭력의 실태와 위험 요인들. *한국가족복지학*, 8, 177-202.
- 정계현, 강미경(2018). 간호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경험과 폭력허용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융합적 관계.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2), 33-42.

정소영, 임채영, 이명신(2016).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편견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 폭력허용도와 관계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7(4), 127-151.

정진아(2016). **대학생용 성적자기주장 척도개발 및 타당화**.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정진아, 전해정, 천성문(2018). 대학생용 성적자기주장 척도개발 및 타당화. **교육치료연구**, 10(2), 279-296.

정춘아(2017). **대학생 데이트폭력에 대한 성적자기주장성 발달 과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정춘아, 주용국(2017). 대학생의 성폭력 인식과 데이트 성폭력 허용도가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교육치료연구**, 9(2), 405-418.

조우연, 김경희(2015). 대학생의 아동기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 - 성인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49, 71-96.

조규영, 김윤희(2014).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5), 2795-2806.

조무용, 김정인(2016). 성평등의식과 성차별주의가 스토킹통념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21(1), 109-134.

채규만(2004). 한국대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 및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9(4), 869-886.

최명현(2005).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 관련 요인**.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최연숙, 이은희, 이은주(2017).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고정관념, 폭력인식과 데이트폭력 대처방식과의 관계. **계명간호과학**, 21(1), 23-33.

최윤경(2014). 여대생의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 명시적·암묵적 성 고정관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19(4), 433-446.

최인숙(2015). 성폭력 통념수용, 대인폭력수용 및 성역할 관련 태도가 공격적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20(3), 277-300.

- 최효선(2018). 성인 초기 여성의 젠더 고정관념과 연인관계만족도 : 자기참묵과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23(3), 431-450.
- 하예지, 서미경 (2014). 데이트폭력 인식과 폭력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0(4), 79-103.
-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http://www.stoptrauma.co.kr>.
- 한국여성의전화(2016). 2016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결과분석.
- 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홍태경(2018).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 가해실태와 가해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5(2), 493-513.
- Arias, I., & Pape, K. T. (1999). Psychological abuse: Implications for adjustment and commitment to leave violent partners. *Violence and Victims*, 14(1), 55-67.
- Foo, J. F., & Margolin, G. (1995).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personality structure : Statistical model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4), 439-485.
- Impett, E. A., & Peplau, L. A. (2003). Sexual compliance: Gender, motivational, and relationship perspectives, *Journal of sex research*, 40(1), 87-100.
- Kiefer, A. K. & Sanchez, D. T. (2007). Scripting sexual passivity : A gender role perspective. *Personal Relationships*, 14(2), 269-290.
- Lewin, M. (1985). Unwanted intercourse : The difficulty of saying no. *Psychology of Woman Quarterly*, 9(2), 184-192.
- Luthra, R., Gidycz, C. A. (2006).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men and women : evaluation of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6), 717-731.
- Patricia, J. M., Kathryn, O., Lisa, L. H., Laura, W., Diane, M. G. Pemela, R. G., Gary, J. B. (1997). Sexual assertiveness scale for women :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4),

790-804.

Rennie, F., Maggie, M. (1991). *The business of assertiveness*, Seoul; Open World.

Riggs, D. S., & O'Leary, K. D. (1989). A theoretical model of courtship aggression, In Pirog-Good and Stet(Eds.),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Praeger Pub.

Rusbult, C. E., & Martz, J. M. (1995). Remaining in an abusive relationship: An investment model analysis of nonvoluntary depend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6), 558-571.

Sabina, C., & Straus, M. A. (2008). Polyvictimization by dating partners and mental health among U.S. College Students. *Violence and Victims*, 23, 667-682.

Smith, P. H., White, J. W., & Holland, L. J. (2003).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dating violence among adolescent and college-age wome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7), 1104-1109.

Vaughn, I. R., Rupal, S., Constance, M. W. (2002). Is lack of sexual assertiveness among adolescent and young adult women a cause for concern?,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on Health*, 34(4), 178-183.

The Mediation Effects of Sexual Assertiveness between Gender Role Stereotypes and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of College Students

Kang Ji-young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g-Bong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Studen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sexual assertiveness on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stereotypes of college students on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In addition, I tried to find out the mediating effect of unwanted sexual behavior rejection, sexual behavior perception, sex appeal, and expression, which are the sub - variables of sexual assertiveness. For the purpose of study, I conducted a preliminary survey interview with 7 college students, and then a self - report survey was conducted with 453 college students and the collected results were analyz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or frequency,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to verify validity. In order to verify the main and interaction effects of gender and partner criteria (actual and virtual

partner) on sexual assertiveness, I conducted the Two-way ANOVA. Th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he mediating effects of sexual assertion were tested for the effects of gender role stereotypes on the acceptability of dating viol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sexual assertiveness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gender role stereotypes on the acceptability of dating violence.

Gender role stereotyp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acceptability of dating violence. The higher the gender role stereotypes, the lower the sexual assertiveness, and the sexual assertiveness affects negatively on the acceptability of dating violence.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proposed by Baron and Kenny (1896) showed that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stereotypes on the acceptability of dating violence was lower in the third stage than in the second stage. That summarizes that the sexual assertiveness was verified as a partner mediation in the relation of gender role stereotypes to dating violence acceptance.

Second, in the relationship of gender role stereotypes to the acceptability of dating violence, the sub-factors of sexual assertions (unwanted sexual behavior rejection and sexual behavior recognition) have partial mediating effects. However, the subordinate factor of sexual assertiveness, sexual attitude recognition and expression, were not significant.

Third, I analyzed what kind of partner I had in mind when participants were answering questions that corresponded to sexual assertiveness. Actual partner, and virtual partner, and analyzed the interaction effect by gender and partner. The main effect of gender was significant, but the main effect of partner criteria was not significant. In the case of the virtual partner, the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participants was not significant, while the

actual partner showed lower sexual assertiveness than femal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tudy, sexual assertiveness has a significant corre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stereotypes of college students and the acceptability of dating violence. The higher the gender stereotype, the lower the sexual assertiveness, which means that the acceptability of dating violence can be increased. In the results of analysis of each sub - factor of sexual assertion, gender role stereotype has negatively correlated negative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nwanted sexual behavior refusal and sexual behavior perception. However, gender stereotypes did not have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exual recognition and expression.

The results of study suggest that sexual assertiveness can act as a mediator to reduce dating viol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exual assertiveness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to prevent dating violence. Sexual assertiveness programs are needed to improve dating relationships. If the program is develope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include basic communication skills and opportunities to resolve gender stereotypes based on respect for the other party.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a date coaching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who want to dat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preventative intervention in dating violence through counseling. I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skills including sexual assertion in counseling interventions. This research data will help to prepare a basic data for group programs for college students that will improve sexual assertiveness.

Key words : gender role stereotype, dating violence , sexual assertiveness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는 대학생의 이성교제에서 성적자기주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문항에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으며, 문항을 잘 읽어 보시고 **평소에 행동하고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과 관련된 연구를 위한 통계자료에만 사용되며, **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 보장을 약속드립니다.**

2019년 3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

지도교수 : 김성봉

연구자 : 강지영

※ 아래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은 통계처리 용도로만 쓰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본인의 성별 ① 남 ② 여
2. 본인의 연령 ① 19세 - 20세 ② 21세 - 22세
 ③ 23세 - 24세 ④ 25세 - 26세
 ⑤ 27세 - 28세 ⑥ 29세 - 30세
 ⑦ 31세 이상
3.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4. 이성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1회 - 3회 ③ 4회 - 6회 ④ 그 이상
5.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① 하지 않음 ② 교제 중
- 1) 현재 만나는 이성이 있다면 교제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③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④ 1년 이상 - 2년 미만
⑤ 2년 이상 - 3년 미만 ⑥ 3년 이상

※ 다음의 문항들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항목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여자가 먼저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	2	3	4
2	성경험이 많다는 건 남자들 사이에서 능력 있는 걸로 통한다.	1	2	3	4
3	여자는 성행동시 남자가 터프하길 기대한다.	1	2	3	4
4	결혼할 때까지 동정을 지킨 남자는 머리숙해 보인다.	1	2	3	4
5	여자들은 남자를 통제함으로써 힘을 행사하려고 한다.	1	2	3	4
6	성관계는 보통 남자가 참지 못했을 때 가능해진다.	1	2	3	4
7	여자들은 별 것 아닌 말이나 행동을 성차별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8	남자에게는 사회적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2	3	4
9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성적인 관심을 보이다가 남자가 다가가면 거절한다.	1	2	3	4
10	성행위는 상대를 소유했다는 의미로 통한다.	1	2	3	4
11	남자는 남의 의견을 따르기보다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12	남자는 성교시 여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1	2	3	4
13	육아의 우선적인 책임은 여자에게 있다.	1	2	3	4
14	가족의 생계 부양 책임은 일차적으로 남자에게 있다.	1	2	3	4
15	'남자의 성욕은 참을 수 없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	1	2	3	4

※ 다음은 이성교제 중 성 접촉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묻는 문항입니다. 성적 갈등상황(타인과 나의 성 욕구가 다른 상황)에서 드는 귀하의 생각이나 행동, 느낌에 가장 가깝다고 판단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1	나는 파트너가 원치 않는 성 접촉을 시도할 때 관심을 돌리거나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한다.	1	2	3	4
2	나는 파트너가 원치 않는 성 접촉을 할 때 내가 느끼는 기분을 솔직하게 말한다.	1	2	3	4
3	나는 연인 사이에 암묵적으로 합의된 신체접촉이라 해도 내가 원하지 않을 경우엔 거절한다.	1	2	3	4
4	나는 파트너가 원치 않는 성 접촉을 시도할 때 끝까지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다.	1	2	3	4
5	나는 파트너가 섹스를 요구하더라도 내가 싫으면 명확하게 거절의사를 밝힌다.	1	2	3	4
6	나는 파트너의 성적 농담이나 희롱에 대해 말로 분명하게 경고한다.	1	2	3	4
7	나는 나의 성적 행동(키스, 애무, 섹스 등)의 한계를 설정한다.	1	2	3	4
8	나는 파트너에게 내가 설정한 한계선까지만 허락한다고 이야기한다.	1	2	3	4
9	나는 섹스할 때 남성은 주도적인 역할을, 여자는 수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10	나는 섹스는 남자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11	나는 여성이라면 남성보다 성경험이 적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12	나는 여성이 먼저 섹스를 원한다고 말하면 해프게 보인다.	1	2	3	4
13	나는 내 몸이 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1	2	3	4
14	나는 나의 성적 욕망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1	2	3	4
15	나는 파트너에게 나의 성적인 가치관이나 성적 취향, 욕구, 고민을 공유한다.	1	2	3	4

위 상황은 어떤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답한 것입니까?

실제 파트너 가상적인 파트너

※ 데이트 상대가 나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상대에게 폭력(신체적/언어적/성적인 것 중 한 가지라도)을 사용해도 정당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상대가 나에게 헤어지겠다고 위협한다면 내가 상대에게 폭력(신체적/언어적/성적인 것 중 한 가지라도)을 사용해도 정당하다.	1	2	3	4
2	상대가 취해서 나에게 행패를 부린다면 내가 상대에게 폭력(신체적/언어적/성적인 것 중 한 가지라도)을 사용해도 정당하다.	1	2	3	4
3	상대가 나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다면 내가 상대에게 폭력(신체적/언어적/성적인 것 중 한 가지라도)을 사용해도 정당하다.	1	2	3	4
4	상대가 나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내가 상대에게 폭력(신체적/언어적/성적인 것 중 한 가지라도)을 사용해도 정당하다.	1	2	3	4
5	상대가 나에게 욕을 한다면 내가 상대에게 폭력(신체적/언어적/성적인 것 중 한 가지라도)을 사용해도 정당하다.	1	2	3	4
6	상대가 나 아닌 다른 이성을 만난다면 내가 상대에게 폭력(신체적/언어적/성적인 것 중 한 가지라도)을 사용해도 정당하다.	1	2	3	4
7	상대가 가족/친구들 앞에서 나를 우습게 만든다면 내가 상대에게 폭력(신체적/언어적/성적인 것 중 한 가지라도)을 사용해도 정당하다.	1	2	3	4
8	내가 밤에 친구와 밖에 나가는 것을 상대가 막는다면 내가 상대에게 폭력(신체적/언어적/성적인 것 중 한 가지라도)을 사용해도 정당하다.	1	2	3	4